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54

사울을 위해 연주한 다윗

(사무엘상 16:14~17:11)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지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다시 들판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예전의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셨거든요.

이제 다윗은 양 떼를 돌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어요.

**“목동인 내가 양들을 잘 돌보주듯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네.
그 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신다네.”**

이렇게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와 시들은
성경의 ‘시편’이란 부분에 기록돼 있죠.
한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진
사울 왕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나셨고 이제 사울 왕의
마음에는 나쁜 생각과 절망, 욕심만이 가득했죠.

**“아이고... 왕께서 갈수록 괴팍한 행동만 하시니
이놈의 신하 노릇도 더는 못하겠네 못하겠어...!”**

**“오늘도 그러셨나?어휴... 계속 저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스스로도 견디기가 힘들실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 끝에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왕이시여, 저희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말해 보라.”

**“예... 저, 저희가 보기에 요즘 왕께
안 좋은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음악이라도 자주 들으시면
한결 괜찮아지지 않을까해서...”**

**“그,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프 연주를 감상하시면
분명 기분이 좋아지실 것이 옵니다.”**

**나쁜 생각들로 고통받고 있던 사울 왕이
체념하듯 말했어요.**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훌륭한 하프 연주자가 있거든 내 연주를
한 번 들어는 보겠다.”**

그때 한 신하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베들레헴 지역에
‘이새’라는 자가 있사온데 그 막내아들이
하프를 아주 잘 연주합니다.
저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자는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아주 용감한 자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베들레헬 땅 이새에게 신하를 보냈어요.

“왕께서 요즘 심신이 허약하시어
음악을 연주해 줄 사람이 필요하시게 되었소.
이 집의 막내아들을 불러오라 하셨으니
그자를 어서 준비시키시오.”

이새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왕의 명령을 전해주었어요.
그러고는 나귀에 빵과 음료를 잔뜩 실어주고
왕에게 바칠 새끼 염소도 준비해서
아들 다윗을 배웅해 주었죠.

**“그래, 네가 다윗이로구나.
연주 솜씨가 좋다고 들었다.
어디 한 번 나를 위해 연주를 해보거라.”**

**다윗이 잠시 숨을 고르고는 침착하게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손가락이 하프 줄을 하나씩 튕길 때마다
그동안 왕궁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사울 왕도, 왕의 신하들도
모두가 다윗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그렇게 한 참이 지나고
마침내 다윗이 연주를 마치자

어둡기만 하던 사울 왕의 얼굴이
정말 오랜만에 밝아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던 게 대체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다윗, 나는 네가 마음에 드구나.
양치기 목동으로 남기엔 재주가 아까워.
내 너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 이다.
너는 내 곁에 머물거라 알겠느냐?”**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매일 매일 다윗의 하프 연주를 들으면서
사울 왕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사울 왕은 다윗의 말솜씨와
지혜로운 판단력을 높게 평가했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신하가 되었어요.
그런 곧,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잠잠하던 블레셋 민족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은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전쟁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맞서기 위해
군사들을 배치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면 블레셋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있었거든요.

‘골리앗’ 장군은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정말이지 무시무시했어요.

일단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무려 3m 정도나 되는 거인이었죠.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또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에 달했어요. 그만큼 힘이 셸다는 거죠.

또 골리앗 장군은 등에 커다란 창을
매고 있었는데 그 창이 어찌나 컸던지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옷감 찢 때 쓰는 기구인
베를 등에 통째로 매고 있는 것 같아!
내 살다 살다 저렇게 힘센 사람은 처음 본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투를 하는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
그앞에 방패를 든 병사를 세워놨었는데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 앞에 방패를 든 병사가
마치 꼬마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어떤가요?
이쯤 되면 블레셋이
자신 있어 하는 것도 이해되죠?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처럼
모두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두커니 서 있던
골리앗 장군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한 걸음 한 걸음, 골리앗이 발을
내딛을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정말 이대로 골리앗 장군의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